濟州島硏究 제54집
2020. 8. pp.23~54.

이방익의 발자취 고찰
-제신(諸神)을 중심으로-

심 규 호*

국문요약

조선시대 제주 출신 무장 이방익은 색다른 경험의 소유자이다. 제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청나라 대만부 팽호도에 표착한 후 중국 내륙을 남북으로 종단하여 무사히 귀국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일기에 담았고, 귀국 후 이를 바탕으로 한글로 쓴 「표해록」과 「표해가」를 남겼다. 이외에도 그의 표류와 중국내 행적에 관한 기록은 정조가 박지원에게 쓰도록 한 「서이방익사」 등이 있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고찰한 내용이다. 현지 방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고의 내용은 제1,2차에 걸쳐 현지를 방문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방익이 방문했던 곳에 대한 고증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가 추적 기행을 통해 새롭게 고찰한 중국의 제신(諸神)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가 방문했던 마조묘와 마궁, 관제묘, 자양서원 등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마조와 관우, 주희 등이 신으로 추존된 현장에서 중국 종교와 제신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 이방익, 마조, 마궁, 관제묘, 자양서원, 민간신앙

* 제주국제대학교, 전 석좌교수, 중문학

Ⅰ. 들어가는 말

이방익(李邦翼, 1756-1801년)은 조선시대 제주 북촌 출신으로 정조 시절 충장위장(忠壯衛長)을 거쳐 오위장(五衛將)을 역임한 무장이다. 1796년 9월 20일 모친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 제주 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동행했던 7명과 함께 표류하다 16일 만에 대만부(臺灣府) 팽호도(澎湖島)에 표착했다. 이후 대만부를 거쳐 하문부로 이송되었고, 복건, 절강, 강소, 산동, 북경을 거치는 등 남북으로 중국 내륙을 종단하여 8개월이 지난 1797년 윤6월 4일 조선 의주로 귀환했다.[1)]

표류는 섬사람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고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인간은 천기(天氣)의 변화무쌍함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방익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난 것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 본도와 동쪽에 자리한 우도 사이의 바다는 예로부터 물길이 거세기로 유명했다. 폭풍으로 인해 돛대가 부러지고 삿대도 잃어버리면 절로 남쪽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제주에서 늦가을이나 겨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할 경우 북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근해나 멀리 유구(琉球, 오키나와) 또는 중국 절강이나 복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만약 여기서 육지에 닿지 않으면 다시 표류하여 대만해협으로 흘러가며, 더 멀리 필리핀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조선 시절 최부는 절강성 영파에 표착했고, 장한철은 유구의 호산도(虎山島)까지 표류했다. 문순득의 경우는 1802년 전라도 우이도(牛耳島)에서 출발했다가 표류하기 시작하여 유구 엄미대도(奄美大島)에 이르렀으나 같은 해 10월 중국 본토를 향해 출항하여 다시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여송국(呂宋國, 필리핀) 서남마의(西南馬宜)에 표착했다.

그러나 이방익의 경우는 여러 표류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표류 기간이 16일로 매우 길었으며, 배안에 비축한 음식이나 물이 없었다. 그럼에도 일행 8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표류하고 5,6일이 지났을 때 바람이 비를 동반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가 내려 해갈하고, 10여일이 지나자 한 자 넘는 물고기가 절로 배 안으로 튀어들어 기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방익은 이렇게 말했다. “황천(皇天)의 주신겐가 해신의 도움인가? 이 고기 아니러면 우리 엇지 살엇스리.”[2)] 두 번째로 제주나 남해에서 표류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근해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방익의 배는 삿대가 없

1) 이방익의 표류 여정과 경유지는 권무일, 2019: 99-157, 참조.
2) 이방익, 『표해가』(한글본), 권무일, 2017: 107. 본고에서 인용한 『표해록』(한문본, 번역본), 『표해가』, 「서이방익사」(한문본, 번역본)는 권무일의 『평설 이방익 표류기』(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26)에 따랐다.

어 멀리 육지를 보고도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바람과 물길을 따라 대만부 팽호도까지 흘러갔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조에 표류객으로 팽호도에 이른 이는 이방익 일행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이국에 표착할 경우 환대를 받기는커녕 최부의 경우처럼 해적을 만나 몽둥이찜질을 당하거나 왜적으로 오인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이방익 일행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방익의 말대로 하늘과 해신의 도움 때문 아니겠는가? 천우신조는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이방익은 중국에서 귀환할 때까지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3권의 일기에 담았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글 서사기행문이 「표해록」을 썼으며, 국한문 혼용의 기행가사 「표해가」를 남겼다. 이방익의 귀환을 보고 받은 정조는 그의 체험담에 특히 관심을 가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그의 구술 내용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면천 군수로 재직하던 박지원에게 이방익의 중국 견문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인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를 집필하도록 했다.[3)]



[그림 1] 팽호도 지도

필자는 전후 3차에 걸쳐 이방익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새로운 기행을 경험했다.[4)] 이는 이방익 일행이 거쳐 간 길을 따라 보고 듣고 확인하며, 새로운 것을 느끼는 일이다. 이방익 일행은 고국을 향해 돌아가는 길이었고, 필자는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이었다. 당연히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고, 목적이 다르니 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한편으로 이방익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보고 느낀 곳을 찾아가는 일종의 추적기이자 필자가 새롭게 보고 느낀 것을 토로하는 일종의 보고문이다. 본고는 추적기로서 이방익의 서술 내용에 대한 몇 가지를 고증하고자 하며, 보고문으로 새로운 기행에서 느낀 점을 중국의 제신(諸神)과 종교의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이방익 표류기를 따라가는 기행 노정

	일 자	경 유 지
제1차 기행 (대만)	2018. 4.27-5.1	고웅(高雄, 녹이문鹿耳門, 대원항大圓港, 안평고보安平古堡, 적감루)-팽호도(마공시馬公市, 백사도白沙島, 길패도吉

3) 이외에도 유득공(柳得恭)의 「이방익표해일기」, 저자 미상의 『남유록(南遊錄)』 등이 있으나 「서이방익사」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

4) 제1차 대만기행은 한라일보의 도움을 받았으며, 제2차와 3차 기행은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았다.

		貝島, 석호구石滬區, 천후궁, 민속박물관)-고웅-대북臺北
제2차 기행 (복건)	2018. 7.6-14	하문(廈門, 동악묘東嶽廟, 남보타사南普陀寺, 범천사梵天寺 상안구翔安區 휘국문공사徽國文公祀)-천주(泉州, 민대연閩臺緣박물관, 천후궁天后宮, 관제묘, 안평교安平橋)-건구建甌(통선문, 건잔建盞거리, 건본建本박물관, 고정서원)-복주(福州, 법해사法海寺, 복건성지방지편찬위원회, 삼방칠항三坊七巷)
제3차 기행 (절강, 강소성)	2019.4. 12-21	상해-무이산武夷山-선하령仙霞嶺(선하고도)-입팔도고진廿八都古鎭-강랑산江郎山-구주衢州(구주박물관, 남종공자묘南宗孔子廟)-용유현(龍游民居苑)-부춘강富春江-자릉조대子陵釣臺-항주杭州(절강성지방지편찬위원회, 영은사, 전당강錢塘江, 서호西湖)-소주蘇州(졸정원拙庭園, 호구虎邱, 한산사寒山寺, 고소대姑蘇臺)-무석無錫(태호太湖)-진강(鎭江)-남경(남경박물관, 남경대학살기념관, 강소성지방지편찬위원회)-양주(揚州 수서호瘦西湖, 양주대학)-상해

Ⅱ. 곤덕배천당(坤德配天堂)과 마조(媽祖)

이방익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행에 관한 글을 시작하면서 마조(媽祖) 이야기부터 꺼낸 것은 그가 팽호도에 표착한 후 처음 묵었던 곳이 바로 「곤덕배천당」이란 현판이 붙어 있는 마조의 사당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의 「표해록」과 「서이방익사」에서 관련 문구를 살펴보자.

늦은 시간에 방 밖에 나와 보니 큰 공해(公廨)가 있고 문 위에 현판이 걸렸는데 「곤덕배천당(坤德配天堂)」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이곳은 중국 복건성 바깥 섬인 팽호부(澎湖府) 지경이라 한다. 그들이 접대하고 공궤(供饋)하는 것이 다 극진하여 원기가 회복되기까지 6,7일이 걸렸다. 8인이 다 이상이 없음을 보고 사자(使者)가 와서 글로써 이르기를 마궁대인(馬宮大人)이 너희들을 불러 문목(問目)하겠다 하니 나오라 하였다. 즉시 나가니 배에 태우고 5리쯤 가자 마궁 아문(衙門)이 보였다.……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몸에 홍포(紅袍)를 입고 앞에 홍일산(紅日傘)을 받치고 교위에 단정히 앉았는데 모양이 엄연(奄然)하고 위풍이 늠름하여 짐짓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표해록」

여덟 사람이 채선(彩船)에 동승하여 5리쯤 가서 마궁(馬宮)의 아문으로 나아가니 강 연변에 채선 수백 척이 널려 있고 강가에는 화각(畫閣)이 있는데 바로 아문이었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를 높여 세 번 외치고는 우리 여덟 사람을 인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마궁대인이 홍포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이는 예순 남짓하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계단 아래에는 붉은 일산을 세우고 섬돌 위에는 시립해 있는 자들이 80명쯤 되었습니다.「서이방익사」

인용문에 나오는 '곤덕배천당'은 땅의 덕이 하늘에 어울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땅의 덕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덕을 뜻한다. 사람의 덕은 곧 마조(媽祖)의 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마조의 덕이 하늘에 어울리는 곳으로 풀이할 수 있다. 땅에 사는 이의 덕이 어떠하였기에 하늘에 어울린다고 했을까?

인용문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방익이 처음 팽호도에 표착했을 때 현지인의 인도로 가서 7,8일 정도 묵은 곳은「곤덕배천당」이란 현판이 걸린 마조궁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마조궁에서 관인의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은 마궁(馬宮)의 아문이다. 이방익 일행은 그곳에서 마궁대인을 만나 자신들이 표착하게 된 사유를 고했다.

「곤덕배천당」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 곳이 마조궁이라면, 이방익 일행이 7,8일 후에 호송인을 따라 갔다는 마궁은 어디를 말하고, 마궁대인은 누구인가? 박지원은「서이방익사」에서 "살피건대 마궁대인의 그 '宮'자는 아마도 '公'자인 것 같습니다. '공'과 '궁'이 중국음으로 서로 같으므로 이는 응당 '馬'씨 성을 가진 통판(通判)일 것입니다."[5]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무일 선생(2017: 119)은 마궁대인은 마조궁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이후 이방익 일행이 팽호부로 다시 들어간 것을 이유로 박지원이 통판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주장대로 박지원은 잘못 알았다.

팽호열도는 4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현재 팽호현정부가 소재한 곳이자 본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공시(馬公市)인데 전체 면적은 335,626평방킬로미터로 팽호군도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군항이 자리하고 있으며,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마조묘가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4백여 년 동안 팽호도 사람들을 비호하는 마조를 모신 마조묘는 낭궁, 낭낭궁(娘娘宮), 낭마궁(娘媽宮), 마낭궁(媽娘宮), 마조궁 등으로 불렀으며, 그곳 나루터 또한 마조궁이라고 칭하고 간칭하여 마궁(媽宮)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일제가 대만과 팽호도를 점령하면서 마공(馬公)이라고 표기하면서 마공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1920년 청대부터 사용하던 마궁오(媽宮澳, 또는 馬宮澳. 오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후미진 곳)를 마공가(馬公街)로 개칭했다. 이방익 일행이 팽호도에 도착했을 당시 지금의 마공시의 명칭은 마궁오(媽宮澳) 또는 마궁오(馬宮澳)였을 것이고 마궁대인

5) 박지원,「서이방익사」, 권무일, 2017: 289, 재인용.

은 바로 마궁의 행정책임자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마궁대인은 그곳 아문의 통판이지만 마씨 성을 가진 이가 아니라 장증년(蔣曾年)이다.[6] 그는 강소성 원화현(元和縣) 사람으로 연감捐監(돈을 내고 국자감에 들어감)하여 통판(通判)이 된 인물이다. 건륭 57년(1792년) 4월 15일 부임하여 가경 2년(1797년) 11월 15일 이임했다. 이방익이 팽호도에 표착했을 당시 통판을 맡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방익 일행이 처음 팽호도에 도착하여 묵은 곳이 마조궁일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몸조리를 한 다음 배를 타고 들어간 마궁은 지금의 마궁시이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마궁대인인 장증년이다.

이방익은 「표해가」에서 마궁대인과 만나 주찬을 대접받고 다른 일행과 별도로 독대했을 당시를 이렇게 노래했다.

> 일배주(一杯酒)로 위로한 후 저 7인은 다 내보내고, 나 혼자 부르거늘 또 다시 드러가니. 관인(官人)이 염임(斂衽)하고 무슨 말삼하옵는고, 그대 비록 기곤(飢困)하나 7인 동무 아니로다.

여기서는 분명 마궁대인을 '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연하다. 그가 들어간 곳은 마조궁이 아니라 마궁대인이 집무를 보는 관아였기 때문이다.

청조 관직 가운데 통판은 지방관제인 부(府)나 주(州)에서 지부(知府)의 정무를 보조하는 관직으로 정육품(正六品)에 해당한다. 청조의 관복은 황제부터 말단인 구품 지마관(芝麻官)이 동일하게 남색(藍色)에서 석청색(石青色)이었지 이방익이 말한 것처럼 홍포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홍포를 입은 것일까? 어쩌면 그가 홍포를 입은 것은 마조가 승천할 때 '붉은 옷(朱衣)'를 입었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궁오, 즉 지금의 팽호도는 마조신앙이 지극한 곳이다. 따라서 마궁대인이 홍포를 입은 것도 그리 어색하지 않다.

마조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신으로 모셔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 태조 건륭 원년 포전현(莆田縣) 미주서(湄州嶼 동라촌(東螺村, 송 태종 연간에 포전은 흥화군興化軍으로 편입되었다) 임씨 집안에서 여아가 태어났다. 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울지 않아 부친은

---

6) 이뤄펀(衣若芬), 「팽호로 표류하다: 조선인 이방익의 뜻하지 않은 기행 및 관련 서사(漂流到澎湖 : 朝鮮人李邦翼的意外之旅及其相關書寫)」, 『역외한적연구집간(域外漢籍研究集刊)』권4, 중화서국, 2008: 422. 장용(蔣鏞) 찬(撰), 『팽호속편(澎湖續編)』권상, 「관사기(官師紀), 14(대만문헌총간台灣文獻叢刊, 제115종種), "蔣曾年, 江蘇元和縣人, 由監生加捐通判. 乾隆五十七年四月十五日到任, 嘉慶二年十一月十五日卸事.(有傳)" 「열전(列傳)」, 19, "江蘇元和人. 乾隆五十七年調任澎湖, 潔己愛民. 歲饑請發賑, 復為粥以啜饑民, 全活無數, 澎人感之."



[그림 2] 천후궁

그녀의 이름을 묵(默, 묵랑默娘의 낭은 여자아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외자 이름에 붙여 부른다), 즉 벙어리라고 불렀다.[7]

민간전설에 따르면, 어려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벙어리라고 불렸던 임묵은 자라나면서 다섯 살에 『관음경』을 외울 정도로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비법을 얻어 화복을 예견하고 주민들의 질병을 낫게 하고 사악한 기운을 내쫓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어두운 밤이면 횃불을 들어 어선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도왔고, 아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조난한 어민이나 뱃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이 적지 않아 사람들에게 '신녀', 또는 '용녀(龍女)'로 칭해졌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가 치던 날 부친과 오빠가 출어하여 돌아오지 않자 임묵랑이 직접 그들을 구하러 바다로 나갔다가 부친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8] 송 태종 옹희(雍熙) 4년(987년) 9월 9일의 일이다.

『연강현지(連江縣志)』에 따르면, 그녀의 시신이 마조열도와 복건성 연강(連江) 사이 바다(마조오馬祖澳)를 떠다니다 지금의 마조열도의 한 섬인 남간(南竿)에 표착하니 마을사람들이 그녀의 효행에 감동하여 지금의 천후궁에 안치하였으며, 이후 사실을 알게 된 포전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고향인 미주로 모시고 왔다고 한다.[9] 남간당(南竿塘)은 이로 인해 마조도(媽祖島)라고 부르다가 '마조'의 존칭을 피휘(避諱)하기 위해 '마조(馬祖)'로 개칭하여 열도의 명칭으로 삼았다.

이렇듯 임묵이란 여성이 실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녀의 사적은 그리 명확치 않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일반인들과 다른 신통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 무녀

---

7) 승소승(僧昭乘), 『천비현성록(天妃顯聖錄)』, 대만문헌총간(臺灣文獻叢刊) 제77種, 대북(臺北), 대북은행발간, 1961: 17, "生至彌月, 不聞啼聲, 因命名曰默."

8) 청대 장학례(張學禮) 찬, 「사유구기(使琉球記)」, "天妃爲父投海身亡." 「사유구기」는 청대 강희 시절 유구로 파견된 정사 장학례가 쓴 글이다. 유구로 가기 위해 민(閩, 복건성)에 도착한 그는 지역의 습속에 따라 천비묘에 참배하며 뱃길의 안전을 기원했다. 그는 "천비의 성은 채이며, 이곳 사람이다(天妃姓蔡, 此地人)."라고 하여 마조의 성이 채(蔡)라고 했으나 이는 오류이다.

9) 청대 척도언(戚弢言), 손발증(孫發曾) 수찬修撰, 『연강현지(連江縣志)』, "媽祖於二十八歲那年, 其父兄駕船行駛到閩江口海域, 驟遇風暴巨浪濤天, 船毀人溺. 媽祖毅然入海營救父兄, 因浪濤洶湧不幸罹難, 遺體雙雙漂流至馬祖澳口, , 將媽祖遺體迎回, 徒留靈穴於此, 千餘年來靈穴墓石皆未移動. 村民相傳. 先民討海捕魚, 遇暴風雨前夕或迷航時, 岸邊乍現一團火球, 引導漁船歸返避風險, 據聞這團紅火是由媽祖靈穴發出, 於是先民稱為媽祖火或媽祖燈."
http://chenching.com.tw/%E9%80%A3%E6%B1%9F%E7%B8%A3/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10] 게다가 공적으로 많은 이들, 특히 어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효행이 지극하여 부친을 구하다가 죽었으니 그녀를 위한 사당을 짓고 그 공덕을 기리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점차 신격화되어 그녀의 출생 또한 미화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후대에 편찬된 사적 『삼교수신대전(三教搜神大全)』에 따르면, "묵랑의 모친이 꿈에서 남해 관음(觀音, 관음보살)이 우발화(優鉢花: 우담발라화優曇鉢羅花의 약칭. 3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데, 그때 전륜왕 가운데 한 명인 금륜왕金輪王이 세상에 나온다고 한다)를 주기에 이를 삼켰더니 임신하여 14개월 만에 비(妃, 임묵랑)을 얻었다."[11]

마조열도는 물론이고 복건 연안지역이나 대만 역시 바다를 생명줄로 여기는 어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주지하다시피 바다는 삶의 터전이되 또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다가설지 모르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바다 근처에 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해줄 신지(神祇), 즉 해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바쳤다.

송대에 이미 그녀는 일개 무녀에서 어부를 수호하는 신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송대, 특히 남송은 북방이 막혀 있어 해상을 통한 무역이나 해운업이 발달했다. 고깃배는 물론이고 상선이 동남해를 오가면서 뱃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이전부터 바다의 수호신, 즉 해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해 용왕인 광덕왕(廣德王)을 비롯하여 불가에서 자비와 지혜의 상징인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세음, 관자재觀自在, 약칭 관음)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신앙 대상일뿐더러 민간신앙에서도 극히 중요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고통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민간신앙에서 널리 신봉되었다. 중국 강소, 절강, 복건, 광동 등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에 널리 퍼져 "집집마다 아미타불, 가호

10) 마조에 관한 최초 기록인 남송 고종 연간(1150년)의 진사 요붕비(廖鵬飛)가 찬한 「성돈조묘중건순제묘비(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 장유담(蔣維錟), 주금염(周金琰) 집찬(輯纂), 『마조문헌휘편(媽祖文獻史料彙編)』(제1집) 비기권(碑記卷)(북경, 중국당안출판사(中國檔案出版社), 2007: 1-2)에 따르면, 마조는 "성이 임씨이고 미주서 사람이다. 처음에는 무당을 일삼아 사람들의 화복을 예지할 수 있었다(姓林氏, 湄洲嶼人. 初, 以巫祝爲事, 能豫知人禍福)."

11) 『삼교수신대전』은 저자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원말명초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7권이며, 유, 불, 도 삼가와 관련된 인물, 예를 들어 공자, 석가, 이이(李珥, 노자)를 위시로 하여 남화장생(南華莊生, 장자), 관우, 혜능, 구마라습 등은 물론이고 옥황상제, 관음보살, 사악(四嶽), 사독(四瀆) 등 전체 181여 신의 성명과 구체적인 사적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4권에 들어가 있는 천비낭랑(天妃娘娘)이 바로 마조에 관한 기록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불가적 색채가 다분하나 명대 만력 연간(1607년)에 편찬된 『만력속도장(萬曆續道藏)』에 수록된 『수신기』와 내용이 유사하여 도교경전에 속한다.

마다 관세음(家家阿彌陀, 户户觀世音).”이란 말이 있을 정도이다. 예로부터 절강(浙江)의 주산군도(舟山群島)는 관세음보살의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뱃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바다를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여긴 것도 당연하다.

이외에도 도교의 악독(嶽瀆), 연서신(演嶼神) 등이 그러하다. 연서신은 지두신(地頭神)으로 소리존왕(昭利尊王), 황제전존왕(皇帝殿尊王) 등으로 부르는데, 복건과 대만 도교의 민간신앙 가운데 중요한 인격신이다.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 시절 복건 관찰사인 진암(陳巖)의 장자로 진연회(陳延晦)라는 이가 있었는데, 건부(乾符) 연간에 황소가 복건을 함락하자 당조가 쇠미하여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 또한 부족하여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음을 개탄하며 사람들에게 밥을 먹고 살면서 조정의 위급함을 구할 수 없으니 죽어 사당 밥(廟食)을 먹고서라도 산사람들의 희망이 위무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이 연강(連江) 연서에 사당을 세우고 그를 모셨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사당을 ‘존왕궁(尊王宮)’, ‘대왕궁(大王宮)’이라고 불렀다.

미주서에서 시작된 무녀 임묵의 일화가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복건 일대에 그녀에 대한 신앙이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고향인 포선에서는 무녀 임묵을 ‘고파(姑婆)’ 또는 ‘낭마(娘媽)’라고 불렀다. 복건성 동남 연해에 위치한 포전(莆田)은 인근의 선유(仙游)와 더불어 흥화부(興化府)에 속했다. 그곳 사람들은 민해방언(閩海方言)을 사용했는데, 마조란 이름은 곧 여성 선조에 대한 존칭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임묵은 마조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송 휘종(徽宗) 선화 5년(1123년)에 통의대부(通議大夫)이자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황제의 명에 따라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노윤적(路允迪, 자는 공필公弼, 남경 응천부應天府(지금의 하남 상구商丘) 사람)이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 전체 여덟 척의 배 가운데 일곱 척이 침몰하고 그가 탄 한 척만 남은 채로 겨우 고려에 도착할 수 있었다.[12] 당시 선원이었던 이진(李振)은 복건 출신으로 성돈(聖墩)의 신(마조)을 받들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이는 미주(湄州) 여신이 보우한 덕분이라고 했다. 고려에서 돌아온 후 노윤적이 조정에 이를 상주하자 북송 선화 5년(1123년) 희종 조길(趙佶)이 그녀를 모시는 성돈(聖墩)의 사당에 ‘순제(順濟, 순조롭게 바다를 건넌다는 뜻)’라는 묘액(廟額, 사당 현판)을 하사하고 제사를

12) 박현규, 2018: 147에 따르면, 송나라가 고려와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국신사(國信使)로 노윤적(정사)과 부묵경(傅墨卿,부사)이 파견했다. 그들 일행은 1123년 3월 14일에 수도인 변경(汴京, 개봉)을 떠나 5월 4일에 명주明州(영파)에 도착했으며, 5월 16일에 명주를 출발하여 6월 12일에 송경松京(개성)에 도착했다. 한 달 동안 송경에 머물다가 7월 13일 출발하여 8월 27일에 명주에 도착했다. 당시 사절의 일원으로 제할인선예물관(提轄人船禮物官)이었던 서긍(徐兢)이 사행 기간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조정에 올린 것이 바로『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지금은 그림은 없고 문장만 남아 있다.

올리도록 했다.[13] 이리하여 성돈의 마조묘는 최초로 황제의 묘액을 받은 사당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돈의 마조묘는 원나라 말에 이미 훼멸되어 현재는 유적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조신앙이 이로 인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널리 퍼져나갔으며, 특히 지금의 팽호열도가 마조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연유로 말미암는다.

원 세조(쿠빌라이 칸)은 지원(至元) 11년(1274년)과 18년(128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14] 태풍을 만나 표류하던 일부 관병들은 마조신이 현몽하여 도와준 덕분에 지금의 팽호도에 상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마조신이 보우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에 세조는 마조를 '천비(天妃)'로 격상시키고 천비궁을 세웠으며, 팽호두에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했다. 명대에는 복건을 비롯한 동남해 연안에 왜구가 극성을 부려 팽호도까지 침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조정에서 팽호도로 관병을 보내 왜구를 섬멸하니, 이 역시 마조신이 보우한 까닭이라 여기게 되었다. 이에 마조사당을 중건하였다. 청대 천계(天啓) 4년(1624년) 정부에서 팽호도에 관병을 보내 네덜란드 인들을 내쫓고 마조궁을 새로 지었다. 현재 마공시에 있는 천후궁이 바로 그것이다. 강희 22년(1682년) 복건 수사제독(水師提督) 시랑(施郎)이 군대를 이끌고 팽호도로 와서 명나라 잔당들을 궤멸시켰다. 당시 시랑은 자신이 승리를 얻은 것이 모두 마조신령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면서 강희제에게 주청하여 가봉(加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희제는 이를 윤허하고 특별히 예부낭중(禮部郎中) 아호(雅虎)를 직접 파견하여 제사를 올리고 경의를 표하도록 했다. 그 이듬해 정식으로 마조를 천후로 가봉했다. 이후로 마조궁은 '천후궁'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지명 또한 마궁(媽宮)으로 부르게 되었다.

매우 흥미롭다. 임묵이 마조신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고려에 사신으로 오는 일행 가운데 임묵 고향 사람, 그것도 마조 신앙을 지닌 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나, 원과 고려의 연합군 가운데 일부 표류하던 관병들이 팽호에 표착하여 마조가 천비가 된 것, 그리고 650여

13) 선화 5년에 노윤적이 고려에 출사하면서 연서신이 바다를 건너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조정에 상주하자 조정에서 '소리(昭利)'라는 묘액을 하사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과연 노윤적이 귀국하여 조정에 상주했던 신이 마조신인지 아니면 연서신인지 사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되 지금은 양쪽 모두 묘액을 하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풍랑을 만났을 때 복주 출신인 서긍은 '조리'에게 빌었고, 이진은 자신의 고향에서 믿던 마조를 불렀을 것이니, 능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분명한 사실은 마조신이 연서신과 비할 바 없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고 또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14) 원과 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공은 1274년(충렬왕 1년)과 1281년(충렬왕 7년) 두 차례 이루어졌다. 아쉽게도 두 차례 모두 태풍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는데, 제2차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은 이른바 가미카제(神風)의 도움이라고 했다.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조선사람 이방익 일행은 팽호도 북단에 도착하여 마궁에서 마궁대인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다시 220여 년이 흐른 뒤 한국 제주의 일행들이 그의 발자취를 찾아 바로 그곳을 찾아갔으니 이 어찌 기연이 아니겠는가?

마조는 송대 '부인'이라는 봉호(封號)부터 시작하여 '비(妃)', '천비(天妃)', '성모(聖母, 강희 19년)', '천후(天后, 강희 23년, 1684년)', 등에 이르기까지 36차례나 봉호가 격상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긴 것은 청 동치 11년에 내린 봉호로 전체 64자이다.[15] 아울러 그녀는 공자와 더불어 국가 제전으로 받들어졌다. 역대 황제들이 그녀에게 중국의 신선들 가운데 가장 많은 봉호를 내린 것은 '보국(輔國)', '호성(護聖)', '비민(庇民)'이라는 세 가지 공적을 치하하기 위함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일반 백성들의 그녀에 대한 믿음, 지역성, 경제적 이유에 따른 송조의 특별한 대우, 이민족 통치자의 지원, 정화鄭和의 후원 등과 관련이 있다.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침내 마조는 최상의 신으로 올라간 것이다.

북송 말년에 마조 신앙은 복건성 복주에서 시작하여 이후 천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이후 천주에서 팽호도를 거쳐 대만과 동남아 일대로 널리 퍼져나갔다. 다른 한편으로 마조신앙은 북방으로도 전해졌다. 중국의 마조신앙이 북방 연안지역으로 전해진 것은 그곳 역시 중요한 뱃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발해만과 산동의 중요 항구는 복건이나 절강에서 북방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길목이자 고려나 조선과 왕래하는 중요 해상항로였다.

북방에 처음 세워진 마조묘는 북송 선화 4년(1122년) 창건된 현응궁(顯應宮)이다. 이는 산동 장도현(長島縣) 소재 사문도(沙門島)에 자리하고 있는데, 사문도는 마조신앙이 크게 성행하면서 묘도(廟島)로 개칭되었다. 묘도는 주변에 여러 섬들이 자리하여 묘도열도로 불리는데, 섬의 북쪽에 마조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원나라 시절 복건이나 절강의 선박들이 북방으로 올라와 사문도를 중간 기착지로 삼으면서 원 지원 16년(1279년) 뱃사람들이 출자하여 마조묘를 크게 증축했다. 고려 말기에 중국을 오간 사신들도 그곳 천비묘를 들러 시문을 남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몽주(鄭夢周), 이숭인(李崇仁), 권근(權瑾, 출국할 때는 육로를 택했고, 귀국할 때 들렀다), 박의중(朴宜中) 등이 그러하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청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 명과 교통하는 중요한 길목이 해상항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행(使行)에 나선 이들이 사문도의 마조묘를 들러 귀로의 안전을 기원했다.[16] 또한 조선 초기 이첨(李詹), 이직(李稷), 김상헌(金尙憲), 최유해(崔有海, 『동사록

15) 청, 목종(穆宗) 동치(同治) 11년(1872년), "護國庇民、妙靈昭應、弘仁普濟、 福佑群生、誠感咸孚、顯神贊順、垂慈篤佑、安瀾利運、澤覃海宇、恬波宣惠、導流衍慶、靖洋錫祉、恩周德溥、衛漕保泰、振武綏疆、嘉祐天后."

東槎錄』을 남김), 이흘(李忔), 김육(金堉) 등이 각기 마조 관련 시문을 남겼다(박현규, 2018: 180-181).

마조는 이렇듯 뱃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신지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 흔적은 제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10월 연대(烟臺)에서 양락산(楊樂山) 일가 50여 명이 3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인천으로 들어왔다. 이후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남하하다가 제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타고 온 배, 해상호(海祥號)에 마조신상이 걸려 있었다. 이후 해상호가 해체되면서 모처에 보관토록 했다고 하는데,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17]

이러한 사실은 마조신앙이 복건, 대만 등 동남해 연안이나 도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필자가 연태에 갔을 때 복건 상인들의 집합소인 복건회관에 마조묘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연태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양락산 일가의 배에 마조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다.



[그림 3] 연대(煙臺) 천후행궁

마조묘가 주로 해상운수에 도움을 주는 신이라는 것은 대전에 모셔놓은 여러 신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조(馬祖) 천후궁 안에는 마조의 능묘와 대전(大殿)에 주신(主神)으로 천상성모(天上聖母, 媽祖) 외에도 임수부인(臨水夫人)[18], 천리안장군(千里眼將軍), 순풍이장군(順風耳將軍)등이 모셔져 있는데, 이들은 원래 도교의 신령들로 마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들이기는 하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다와 조업, 항해 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마조묘에 배향한 것이다. 이외에 백마존왕(白馬尊王), 오현신군(伍顯神君), 천원수(天元帥), 태세성군(太歲星君), 무위진장군

16) 명 태조는 금릉(지금의 남경)에서 개국했으나 연왕(燕王) 주체(朱棣)가 정변을 일으켜 국도를 북경으로 옮겨 영락제가 된 후로 조선 사신들의 노정도 바뀌었다. 요동에서 묘도열도를 지나 금릉으로 들어가는 육로와 해로가 모두 폐쇄되고, 요동에서 하북을 거쳐 육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마조묘는 명 숭정 1년(1628년) 조정에서 현응궁(顯應宮)이라는 묘액을 받았으며, 청 함풍 5년(1855년) 청 조정에서 신공제운(神功濟運)이라는 묘액을 받았다.

17) 양씨 일가의 회고에 따르면, 마조신상은 양쪽 선실 가운데 모셨고, 해상호가 해체되기 직전에 제주의 한 절(일관도一貫道)에 모셨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찾을 수 없다.

18) 임수부인(767-792년), 성은 진(陳), 이름은 정고(靖姑)이며, 복주부 고전현 사람이다. 임수부인은 "포전에는 마조가 있고, 고전에는 정고가 있다(莆田有媽祖, 古田有靖姑)."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조 임묵랑에 견줄만한 뛰어난 여성이자 또한 신령이다. 그녀 역시 여러 차례 조정에서 봉호를 받아 남송 이종(理宗) 숭복조혜자제부인(崇福昭惠慈济夫人)부터 시작하여 청조 함풍 연간에 순천성모(順天聖母)가 되었다.

(威武陳將軍), 복덕정신(福德正神) 등이 모셔져 있다. 이들은 모두 도교의 신령이다. 마조 신앙은 2009년 10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세계 3억 인구가 신봉하고 국가가 제사를 봉행하는 신이 되었다.

Ⅲ. 관제묘와 관우

이방익 일행은 마조묘를 떠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 관제묘(關帝廟)로 이송되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듯하다. 첫째, 그가 무장이라고 밝힌 것에 따라 같은 무장인 관우의 사당을 보여주고 싶었던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관제묘는 당시 팽호도에게 가장 화려한 건물이자 신을 모시는 사당이었다. 요즘처럼 관광명소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관제묘는 팽호열도 마공도의 자랑이자 위의(威儀)를 갖춘 명소였다. 당연히 외부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곳이었을 터이다. 이방익의 전체 여정 중에서 관제묘에 들른 것은 팽호도와 복건성 복주 두 군데이다. 우선 「표해가」에 나오는 관련 대목을 살펴보자.

> 중문 안에 들어가니 큰집 한 칸 지었는데 관공의 소상(조각상) 크게 하여 엄연히 앉혀 놓았구나. 좌우를 둘러보니 평상(平床)이 몇몇인가? 평상 위에 백전(흰 모전, 양탄자) 깔고 백전 위에 홍전이라. 수놓은 붉은 비단이불 꽃무늬 상에 벌려놓은 음식,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날 위해 베풀었다네.[19]

팽호도는 섬인데다 토지가 척박하여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곳이다. 생업의 터전이 바다인지라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문턱을 들고났기에 기댈 곳이 필요했다. 그곳에 '왕야(王爺)'신앙이 흥성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팽호도에는 왕야 신앙이 흥성했을 뿐만 아니라 '관성제군(關聖帝君)' 또는 '문형성군(文衡聖君)'을 주신으로 하는 묘우가 전체 16군데나 될 정도로 많았다. 유래가 깊은 관제묘는 두 군데이다. 대표적인 곳은 팽호 서서향(西嶼鄕)에 있는 소지각(小池角) 관제묘이고 다른 하나는 대의궁(大義宮)이다. 전자는 1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녔다고 하나 이방익이 들렀던 곳이 아니고, 아마도

19) 이방익, 「표해가」, "中門 안에 드러가니 큰집 한 間 지엿는대, 關公 塑狀 크게 하야 儼然히 안쳣고나. 左右를 둘너보니 平床이 멋멋친고. 平床 우에 白氈 펴고 白氈 우에 紅氈이라. 繡노흔 緋緞이불 花床에 버린 飮食. 生來에 初見이라 날 위하야 베프럿네." 「표해록」, "듕문을 드러가니 큰집 흔 간의 관왕(관운장) 금상을 크게 ᄒᆞ여 안치고 좌우의 평샹을 느러노코 백젼을 펴고 그 우해 홍젼과 유록단포진을 펴고 쥭침과 슈금을 각각 펴시니 눈이 찬란ᄒᆞ여 안즐 곳을 뎡치 못ᄒᆞᆯ너라. 이윽고 미음과 계고을 권ᄒᆞ고 큰상을 화샹 압희 노코 음식을 ᄎᆞ례로 나오니 본 바 처음이오 손이 떨여 먹을 바ᄅᆞ 아디 못ᄒᆞᆯ너라." 권무일, 2017: 126, 252 재인용.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궁이 인용문에 나오는 관왕묘일 것이다. 대의궁은 비기(碑記)가 없어 정확한 건립연대를 확정할 수 없지만 『팽호기략(澎湖紀略)』에 따르면 강희 23년(1684년)에 팽호도가 청나라 판도로 들어온 후인 강희 36년(1697년)에 평대(平臺) 뒤편에 세워졌다고 한다.[20] 무성묘(武聖廟)는 마궁오(媽宮澳) 협진서(協鎭署) 서쪽 교장(校場, 지금의 팽호방위사령부 동쪽)에 위치했다. 대략 백년이 지난 다음 이방익 일행이 바로 그곳에 가서 대접을 받은 셈이다. 이후 도광道光 5년(1825년) 팽호 통판 장용(蔣鏞)이 기부금을 받아 중수했고, 광서(光緖) 원년(1875년) 팽호 수사협부장(水師協副將) 오기훈(吳奇勳)이 홍목정(紅木埕, 북진北辰 시장 일대)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터만 남았다. 대만부에서 배를 타고 하문에 도착한 이방익 일행은 천주로 들어갔다가 다시 봉성현을 떠나 복건성(복건 성회가 있는 복주)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법해사에서 묵게 된다.

> 복건성에 이르니 법해사라고 하는 절의 나산당이라 제액한 작은 집으로 들어가니 관왕 화상이 윗자리에 앉혀져 있고 차례로 금불상을 앉혔는데 그곳의 관원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와서 분향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진배없으니 중국 사람들이 불상 모시는 것이 극진함을 알 수 있었다. 성내에는 골골마다 절을 지어 불상 위하는 도리가 너무 극진한데 백성들이 혹 우환이 있거나 생산을 못하거나 하면 반드시 불전에 기도하였다.[21]

인용문에 보면 법해사라는 절의 나산당이라고 했는데, 법해사가 나산(羅山)이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듯하다. 실제로 현재 복주 시내에 자리한 법해사는 나산법해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법해사는 오대 후진(後晉) 개운(開運) 2년(945년)에 건립된 사원으로 흥복원(興福院)이라 불렀다. 송 대중상부(大中祥符) 연간(1008-1016년)에 법해사로 개명했다. 송 정화(政和) 7년(1117년)에는 도관(道觀: 도교사원)으로 바뀌어 신소궁(神霄宮)으로 불렸다가 어떤 권세가의 별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명 만력 27년(1599년) 다시 불사로 바뀌었으나 다시 일반인이 차지했다가 불사로 바뀌기를 반복했다. 1928년 원영법사(圓瑛法師)가 설봉숭성사(雪峰崇聖寺, 870년에 건립된 사찰로 선종 운문雲門과 법안法眼 양파의 발상지이자 강남 제일 총림으로 불린다)의 주지로 있으

---

20) 청, 호건위(胡建偉) 찬집(纂輯), 『팽호기략』권2 「지리기(地理紀)」, 「묘사廟祠」 참조.

21) 이방익, 「표해록」, "북건성의 니ᄅᆞ니 법해ᄉᆞ라 ᄒᆞ는 뎔의 나산당이라 졔액ᄒᆞ고 져근집의 드리거ᄂᆞᆯ 보니 관왕화샹을 웃듬의 안치고 ᄎᆞ례로 금불을 안쳐 그 ᄯᅡ 관원이 삭망으로 와 분향ᄒᆞ기ᄅᆞᆯ 아국과 ᄀᆞᆺ티 ᄒᆞ니 듕국사ᄅᆞᆷ의 블도 위ᄒᆞ미 극진ᄒᆞ여 골골마다 셩내의 뎔을 지어 위ᄒᆞᄂᆞᆫ 도리가 너모 존경ᄒᆞ니 백성드리 혹 우환이 잇거나 생산을 못ᄒᆞ거나 ᄒᆞ면 필연 불젼의 긔도ᄒᆞ더라." 위의 책, 263. 재인용.

면서 법해사를 중수하여 설봉하원(雪峰下院, 설봉숭성사의 분원)으로 삼았다. 근 1천여 년의 세월 속에서 참으로 창상(滄桑)과 같은 변화를 겪은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1948년 충심화상(忠心和尙)이 그곳에 법해중학교를 세워 가난한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했고,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는 복건성 및 복주시 불교협회가 사찰 안으로 들어왔다.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봉건의 잔재인 사찰이 원형 그대로 존속할 수 없었다. 결국 대웅전을 제외한 모든 불상이 파손되었고, 사찰은 공장이나 기관의 사무실로 점용되었다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에야 불교계로 환수되었다.

우리 일행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명대 시절 나산당(羅山堂)이며 금적원(金積園), 만록당(萬綠堂), 습향정(拾香亭) 등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하여 명말의 시인들이 즐겨 모여 시회(詩會)를 가졌다는 옛 영화는 간 데 없고 건축물도 모두 사라지고 휑하니 텅 빈 폐허만 남았다. 알고 보니 2011년 2월 7일 새벽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방익이 방문했을 당시는 물론 불교 사찰이었다. 나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산당, 그것도 불교 사찰에 관운장이 모셔진 것일까? 먼저 관우의 신격화와 관제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관우(關羽)는 주지하다시피 『삼국연의』에서 도원결의로 유명한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자 촉나라를 건설하는데 절대적인 공훈을 세운 무장이다. 하지만 사실 소설이든 정사(『삼국지』)이든 그의 분량은 유비나 제갈량에 비해 크게 모자라며 특히 소설에 나오는 관우의 모습은 정사에 비해 매우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삼국연의』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맹장 안량(顔良)과 문추를 단칼에 베어 명성을 날렸다고 하나 실제로 죽인 이는 안량 한 사람일 뿐이다. 또한 관우가 조조 밑에 있다가 유비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다가 다섯 개의 관문을 돌파하면서 조조의 여섯 장수와 싸워 참살했다는 이른바 '과오관참육장(過五關斬六將)'의 이야기는 소설적 상상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 역사상 매우 특수한 인물로 추앙받았다.



[그림 4] 관제묘의 관우상

관우는 219년 오나라의 기습으로 맥성(麥城)에서 도피하다 생포되어 여몽에게 호송되어 아들 관평(關平)과 함께 참수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참수된 후 머리는 낙양(洛陽), 몸은 당양(當陽) 옥천산(玉泉山)에 묻혔다고 한다. 이렇듯 몸과 머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여귀(厲鬼)로 여겼다. 생전에는 장수, 후작, 그리고 사후에 여

귀였던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직급이 올라 공(公), 왕(王), 제군(帝君), 대제(大帝)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무묘(武廟)'의 주신이 되어 공자 문묘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

관우에게 왕이라는 작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송나라 때부터다. 1102년 송 휘종은 관우를 충혜공(忠惠公)으로 추봉했고, 1104년에는 숭녕진군(崇寧眞君), 1108년에는 무안왕(武安王), 1123년에는 의용(義勇) 두 자를 더해 의용무안왕(義勇武安王)으로 봉했다. 남송의 고종은 1128년에 관우를 장목의용무안왕(壯繆義勇武安王)으로 봉했고, 후에 영제왕(英濟王)으로 고쳐 추존했다. 원 문종은 1328년에 관우를 현령무안제왕(顯靈武安濟王)에 봉했다.

관우를 황제로 높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때부터이다. 1402년 정변을 일으켜 황제가 된 영락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우의 영검한 도움을 받아 황제가 되었다고 했다. 이에 명의 신하와 백성들도 관우를 신으로 숭상했다. 1509년 명 무종은 조서를 내려 전국에 있는 관우의 사당 이름을 모두 충무묘(忠武廟)로 고칠 것을 명했다. 1594년 명 신종은 도사 장통원(張通元)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우를 제(帝)에 봉하고, 충무묘를 영렬묘(英烈廟)로 바꾸었다. 관우에 대한 숭배는 청나라 때도 계속되어 1644년 청 세조는 관우를 충의신무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에 봉했으며, 1703년 청 성조는 관우의 조부에게는 유창왕(裕昌王), 부친에게는 성충왕(成忠王)의 작위를 내려 공작으로 추존했다. 1725년(옹정 3년) 옹정제는 칙령을 반포하여 관제묘를 무묘(武廟)로 격상하여 공자를 모시는 태뢰(太牢) 제사의 형식에 따라 봄과 가을에 제를 올리도록 했다. 이리하여 관우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를 올리는 신이 되어 문성 공자와 동렬에 올랐다. 관우의 묘를 부르는 관제묘는 '관림(關林)'이라고도 하는데, '림(林)' 자는 오직 성인의 무덤에만 붙였던 글자다. 중국 역사상 '림' 자가 붙는 무덤은 단 두 개뿐으로, 바로 유학의 시조 공자의 무덤인 공림(孔林)과 관우의 무덤인 관림이다. 관림은 모두 세 곳으로 관우의 목이 안장된 낙양 관림, 그의 시신이 묻힌 당양 관림, 그의 고향에 세워진 운성 관림이다.

이렇게 관우를 황제의 호칭까지 붙여가며 찬송한 것은 관우가 포공(包公, 포청천包青天), 제공(齊公, 제환공齊桓公)(이들을 일러 삼공이라 한다)과 더불어 공의(公義)와 충정의 화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층은 그를 추앙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충정을 바란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관우는 국가가 공인한 '대제'일 뿐만 아니라 유불도 삼교가 공히 모시는 주신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우선 유교는 그를 신의와 충절의 '무성(武聖)'으로 숭상하여 '문성' 공자와 동렬로 모셨다. 그를 모시는 사당을 일러 관제묘(關帝廟)라고 하는데, 묘는 유교의 사당을 의미한다. 도교는 관우를 '관성제군關聖帝君'(간칭 관제關帝)으로 칭하며

도교를 수호하는 네 명의 장수 가운데 하나로 '호법사수(護法四帥)'의 자리에 올랐다. 모든 도관에 가면 관공을 모시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주로 상인들이 주로 그곳에 참배한다. 그가 상인들에게 특별한 신으로 숭배받는 이유는 단순히 의리 또는 신의의 화신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중국에서 월상(粤商), 휘상(徽商)과 더불어 삼대 상방(商幇)인 진상(晉商)과 관련이 있다. 관우는 하동군(河東郡) 해현(解縣) 사람이다. 해현은 지금의 산서(山西) 운성(運城)이니, 진상의 본거지 사람인 셈이다. 산서 사람들에게 관우는 고향사람이니 누구보다 친숙하고 가까운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진상은 오랫동안 그를 염지(鹽池)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타지로 가면 관제묘에서 기숙하며 그를 기억하고 참배했다. 이후 산서회관을 건립하고 그의 신상을 모셨다. 산서사람, 특히 진상에게 관우는 정신적 우상이자 신령이었던 것이다. 진상이 '성신(誠信)'과 '단결'을 상방의 정책으로 삼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터이다. 이후 관우는 모든 상인들이 숭앙하는 상업신이 되었다.

유교와 도교가 이렇듯 관우를 극진히 숭상하니 불교인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종교는 민간에 뿌리를 박고 민중들에 의해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 또한 민중들이 열렬히 숭배하는 관우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끌어들일 수는 없다. 하여 일종이 설화가 등장한다. 『불조통기(佛祖統紀)』에 따르면, 수대(隋代) 천태종 창시자인 지자대사(智者大師)가 옥천산(玉泉山)에 정사(精舍)를 건립하고자 했다. 어느 날 입정入定에 들었다가 홀연 관공이 현령(顯靈)하여 온갖 귀신들을 몰고 소란을 피웠는데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불교의 교리를 펼쳤다. 마침내 대사의 교화로 인해 관공이 오계(五戒)를 전수받고 불법에 귀의했다고 한다.[22] 이제 정식으로 불제자가 되었으니 등급을 올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불교는 그를 불법을 수호하는 '가람보살(伽藍菩薩)'로 칭하고 조상을 만들어 받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관우는 중국 본토 불교의 신명이 된 셈이다.

이방익이 방문한 법해사라는 절에 관공의 화상이 윗자리에 모셔진 것은 바로 이런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방익은 "관왕 화상이 윗자리에 앉혀져 있고 차례로 금불상을 앉혔는데 그곳의 관원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와서 분향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진배없으니 중국 사람들이 불상 모시는 것이 극진함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차례로 앉은 금불상이란 합사合祀한 악비, 장비, 조운(趙雲), 조공명(趙公明, 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 이랑신(二郎神) 등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쉽게도 흔적이 남지 않아

22) 석지경(釋志磬) 찬(撰), 『불조통기·지자전(智者傳)』, "智者(智顗의 법명)到荊州, 欲創精捨. 一日, 見關羽神靈告之, 願建寺護持佛法.……師即授以五戒, 成為佛教的伽藍護法神."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모시는 관제묘가 있다.[23] 1597년 정유재란(萬曆朝鮮之役) 때 총병(總兵) 양호(楊鎬) 휘하에서 유격(遊擊)으로 참전한 진인(陳寅)[24]이 울산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한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관우의 음덕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관우상을 봉안하였다. 정유재란까지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명군이 귀국한 1999년 명조 만력제는 천하에 「평왜조(平倭詔)」를 반포했다. "아국은 어진 은사가 호탕하니 공손한 나라가 곤란에 빠졌을 때 원조하지 않음이 없었다. 의로운 무공을 떨쳐 들보를 뛰어넘는 자는 설사 강하다할지라도 반드시 살육할 것이다."[25]라고 한 것을 보면, 조선지역(朝鮮之役), 즉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자신들이 조선에 원병을 보낸 것을 "의무분양"함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의로운 무공의 상징인 관우의 신령한 도움이 있었다고 여긴 것 또한 자연스럽다. 만력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에 관제묘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여 선조 32년(1599)에 동관왕묘(동쪽 관왕묘)를 짓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601년에 완성했다. 이후 1598년(선조 31) 남관왕묘(南關王廟), 1883년(고종 20) 북묘, 1902년에 서묘가 세워졌다. 현재 보물 제142호로 지정된 동관제묘(일명 동묘)에는 현령소덕의렬무안성제묘(顯靈昭德義烈武安聖帝廟)라는 편액과 현령소덕무안왕묘(顯靈昭德武安王廟)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전자는 고종, 후자는 영조가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만력제가 보내온 것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살펴볼 수 없다. 만력제는 만력 42년(1613년) 관우에게 삼계복마대제신위원진천존관성제군(三界伏魔大帝神威遠鎭天尊關聖帝君)이란 봉호를 내렸다. 관우의 봉호는 북송 휘종徽宗이 내린 충혜공忠惠公부터 시작하여 광서 5년(1879년)의 충의신무령우인용위현호국보민정성수정익찬선덕관성대제(忠义神武灵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忠義, 仁勇, 護國保民, 義勇, 武安 등이다. 이렇듯 의로운 무용, 어진 무용의 상징인 관우는 '조선지역'을 마무리하면서 조선 땅에 자리를 잡았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참전한 명군의 장수들이 관우의 신령에게 의탁함이 지극하였기 때문이고, 명조가 관

23) 조선시대는 동관왕묘 외에 경상북도 성주와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강화도에 관제묘가 건립되어 있다. 특히 강화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관제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불가나 무가가 차지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24) 혹자는 진린(陳璘)이라고 하나 1598년 진린이 왜란에 참가했을 당시 직책은 어왜총병관(御倭总兵官)이지 유격이 아니었다.

25) 『신종실록(神宗實錄)』권334, 만력27년 윤4월 병술(丙戌), 「평왜조(平倭詔)」, "我國家仁恩浩蕩, 恭順者無困不援. 義武奮揚, 跳梁者, 雖强必戮."
https://baike.baidu.com/item/%E5%B9%B3%E5%80%AD%E8%AF%8F/10915124?fr=aladdin에서 2020년 6월 20일 인출.

우를 왕이 아닌 황제의 지위로 격상시킬 정도로 숭배하던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관우는 일개 장수에서 왕을 거쳐 황제의 지위까지 올라 문제(文帝)인 공자와 동렬인 무제(武帝)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정치적으로 관우를 호국보민(護國保民)의 상징으로 삼아 백성들의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함이자 모든 신령 위에 황제가 있다는, 다시 말해 황제가 바로 최고의 신령인 천자임을 확인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관우는 국가가 제의를 주재하는 신령이 되었으며, 일반 백성 또한 최고의 숭배 대상으로 모셨던 것이다. 이방익이 관제묘를 들른 것은 단순히 그가 무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관제묘가 이미 최고의 사당으로 자리 잡아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Ⅳ. 자양서원과 주희

중국에서 절은 사(寺), 도교 사원은 관(觀), 유교 사당은 묘(廟)라고 부른다. 각기 모시는 신지가 다르고, 의식 또한 다르며, 신도들도 구분된다. 예를 들어 도교의 제사의식은 초(醮)라고 하는데, 도사가 제단을 마련하고 제를 지낸다. 불교의 의식은 예불과 법회, 공양, 각종 재(齋, 영산재, 수륙재 등)로 이루어져 있다. 유교는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복잡한 예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교와 달리 신의 계보는 없으나 묘당(廟堂)에 배향된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성인에게 올리는 제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거행되는 석전대제(釋奠大祭)는 유교 의례의 결정판이다. 유가 또는 유학을 유교로 호칭하여 마치 종교처럼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삼교, 즉 불교, 도교, 유교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각각의 성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를 믿는 이가 집안에서 유가식 장례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를 믿는다고 하여 절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곳이 어디든 자신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써서 붙이고 몸을 굽혀 절한다.

사원이나 묘당, 관과 달리 서원(書院)은 고대 학교의 명칭이다. 당연히 종교적 의례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서원은 교학과 장서(藏書) 외에도 제사를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다. 서원은 당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지만[26] 학교에서 제사를 중시한 것은 이미 오

26) 서원이 최초로 생겨난 것은 당대 정관(貞觀) 9년(635년) 사천에서 설립된 장구종(張九宗) 서원이다. 관립 서원은 당대 현종 개원 6년(718년)에 설립된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 13년에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으로 개명함)인데, 중서성 휘하 유서를 수집하고 시강(侍講)하던 기구였다.

랜 연원을 지니고 있다. 『예기·문왕세자』에 따르면, “무릇 처음 학교를 세운 이는 반드시 선성과 선사에게 석전을 올린다. 석전의 일을 거행할 때는 반드시 폐백을 올리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처음으로 학교를 세운 자는 기물을 만들어 희생의 피를 바르고 폐백을 사용하여 기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며, 그런 다음에 석채의 예를 거행한다.”27) 고대 학교에서 선성(先聖)이나 선사(先師)를 배례하는 석채(釋菜)와 석존(釋尊)이라는 제사의식을 거행한 것은 분명 교육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서원이 흥성했던 북송대에 이르러 새롭게 이어졌다. 특히 남송대 주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봉행한 석채의(釋菜儀)는 공자를 선성으로 삼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선사로 삼았으며,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사마광, 장재, 이동 등을 선현으로 모시고 향사를 봉행했다.28) 송대에 서원에서 향사를 봉행한 것은 성리학의 도통을 확립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여하간 서원에서 선성이나 선사, 선현을 모시는 것은 늦어도 송대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했다. 특히 원대 지원 28년(1291년) 세조가 서원을 확충하라는 영을 내려 수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법적으로 서원과 묘학(廟學)을 보호하는 법령을 반포했다. 이렇듯 원대에는 서원을 관학과 동일시했으며, 서원의 책임자인 산장(山長)을 학관(學官)으로 간주했다. 여기서 ‘묘학’이란 공묘(孔廟) 안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이방익의 발자취를 따라 제2차 중국 기행을 떠난 우리 일행은 2018년 7월 6일 하문에 도착하여 이방익이 참배했다는 주자의 서원을 찾기 위해 나섰다. 이방익이 하문부에 도착하여 자양서원에 참배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丁巳 正月初四日에 廈門府에 드러가니, 紫陽書院 네 글자를 黃金으로 메웟는대. 甲紗帳 둘너치고 左右翼廊 奢麗하다. 내 비록 區區하나 禮儀之國사람이라. 이 書院 지나가며 엇지 瞻拜 아니리오. 拜禮를 畢한 後에 殿밧게 나와보니, 數百 儒生 갈나안져 酒饌으로 推讓한다.「표해가」

> 정사년 정월 초4일 하문부에 이르니 큰 산이 있고 산 앞에 큰 절이 있는데 이름은 향불사라고 한다. 절 앞에는 반석이 있고 그 아래 돌을 깎아 암자를 지었는데 돌 위의 큰 다리가 10장이 넘고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는 돌이 서있는데 반석 위에는 큰 소나무가 있다. 여기가 주자서원(朱子書院)이다.「표해록」

---

27) 『예기·문왕세자』, “凡始立學者, 必釋奠於先聖先師. 及行事, 必以幣.” “始立學者, 旣興器用幣, 然後釋菜.”

28) 『주자어류(朱子語類)』권90, “宣聖像居中, 兗國公顔氏、郰侯曾氏、沂水侯孔氏、鄒國公孟氏西向配北上, 並紙牌子. 濂溪周先生東一、明道程先生西一、伊川程先生東二、康節邵先生西二、司馬溫國文正公東三、 橫渠張先生西三、延平李先生東四從祀, 亦紙牌子, 並設於地.”

배로 하문에 이르러 자양서원에 머물렀는데(舟到廈門, 止舍於紫陽書院), 들어가서 주자의 상에 절을 하니 유생 수백 명이 와서 보고 성의껏 대해주었다.「서이방익사」

이상의 기록에서 세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방익 일행이 자양서원 또는 주자서원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치 않다. 우선「표해가」는 "이 서원을 지나가며 어찌 참배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여 도중에 들른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서이방익사」는 이방익이 "배로 하문에 이르러 자양서원에 머물렀는데(舟到廈門, 止舍於紫陽書院)"라고 했다. '지사止舍'는 머물러 쉰다는 뜻인데, 하루를 묵었는지 아니면 잠시 쉰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표해가」에서 "서원을 지나가며"라고 했으니 잠시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여하간 잠시 들른 것인지 아니면 일행이 묵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그곳에 들러 주자 서원에 들러 주자상(朱子像)에 참배함으로써 당시 현지인들의 이방익 일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표해록」은 주자서원이라고 했는데,「표해가」는 자양서원이라고 했다. 물론 자양은 주자의 조적(祖籍)인 강서성 무원(婺源) 남쪽에 있는 자양산(紫陽山)에서 따온 별칭이니[29] 주자의 서원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나 주자를 모시되 서원의 이름이 다른 곳이 또 있어 구체적인 장소를 찾는 데 혼동이 생길 수 있다. 하문에는 전체 19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독특하게도 거의 모두 주자를 독존하여 가는 곳마다 주자상(朱子像)이 모셔져 있다. 하문의 양대 서원은 옥병서원과 자양서원이다. 주자서원이란 명칭의 서원은 없다. 그렇다면 그가 지칭한 것은 자양서원일 것이다.

셋째,「표해록」은 주자서원이 향불사라는 절 인근의 암자라고 했는데,「표해가」와「서이방익사」에 따르면, 수백 명의 유생이 모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온다. 암자인데, 수백 명이 모일 정도로 크다는 것이 일단 의아스럽다.

그렇다면 주자서원이든 자양서원이든 그가 참배했다는 곳은 어디인가?

박지원은「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에서 "주자가 동안현의 주부(主簿)로 있을 때 고사헌(高士軒)을 지어 여러 유생과 더불어 그곳에서 강습한 일이 있는데 지금의 서원(주자서

29) 주자(1130-1200년) 이름은 희(熹), 자는 원회(元晦), 중회(仲晦, 원元을 감당할 수 없다하여 바꾸었다). 이외에 계연(季延), 오이랑(五二郎)으로 부르기도 했다. 호는 회암(晦庵), 회암통수(晦庵通叟), 백록동주(白鹿洞主), 다선(茶仙), 목재(牧齋), 인지당주(仁智堂主), 둔옹(遯翁), 운학노인(雲壑老人), 창주병수(滄洲病叟) 등 다양한데, 각기 유래가 있다. 이외에도 그가 활동하거나 관련이 있는 지역 이름을 따서 평릉주희(平陵朱熹), 단양주희(丹陽朱熹), 오군주희(吳郡朱熹), 신안주희(新安朱熹), 자양주희(紫陽朱熹) 등으로 칭해졌는데, 자양은 그의 조적(祖籍)인 강서성 무원(婺源) 남쪽에 있는 자양산(紫陽山)에서 따온 별칭으로 부친이 건양(建陽)으로 이주한 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서당의 이름을 자양서당(紫陽書堂)이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이 서있는 자리도 아마 그 옛터인 듯 합니다. 또 원나라 지정(至正, 1341-1367년) 연간에 고을 수령 공공준(孔公俊)이 서원을 세우고 황제께 청하여 대동서원이란 액호(額號)를 하사 받았는데 바로 이 서원을 가리킵니다."[30]라고 말했다. 말인 즉 옛 현아 자리에 있는 고사헌이 이방익이 말한 주자서원이란 뜻이다.

하지만 현재 유적만 남아 공원(주자문화원)이 조성되어 있는 옛 동안현아(同安縣衙)의 '고사헌'은 사실 주희가 4년 6개월 동안 동안의 주부로 있으면서 공무 외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지 박지원이 말한 것처럼 무슨 강학소나 고사들이 모여 시회를 여는 등의 장소가 아니다. 또한 서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서원은 강학하는 곳이다. 당연히 학생이 있고, 학사가 있으며 서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숭안 오부리와 무이산(武夷山) 5곡에 있는 무이정사(武夷精舍)는 주자가 거주하면서 강학(講學)하던 곳인데, 주자가 사망한 후 국가에서 중수하여 자양서원(紫陽書院)이라 칭하고 서원에 공전(公田)을 주었으며, 명대 1448년(정통正統 13년) 주문공사(朱文公祠)로 개명한 바 있다.

우리 일행이 현지 전문가들의 소개로 처음 간 곳은 하문 대륜산(大輪山) 범천사(梵天寺) 뒤편에 자리한 '문공서원(文公書院)'이었다. 문공서원은 원 지정(至正) 10년, 공자 후예인 공공준(孔公俊)이 동안 현윤(縣尹)으로 있으면서 주희가 거주하던 '외루암(畏壘庵)'에 세운 서원이다. 명 가정 연간에 이학자인 임희원(林希元)이 서원을 주희가 가끔씩 거닐며 시를 읊던 대륜산 범천사로 이전했다. 우리가 간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붉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다란 바위가 나오고 '자양과화(紫陽過化)', '추로유풍(鄒魯遺風)' 등의 마애석각이 보이고 그 위로 주희의 석각신상이 서 있는데, 과연 주희와 관련이 있는 서원이 분명했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내용과 비교컨대 다른 점이 많았다. 우선 절 앞이라고 하였는데, 문공서원은 뒤에 있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수백 명이 나열하기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우리는 사진만 찍고 돌아섰다. 이방익이 다녀간 현장을 찾았다는 기쁨이 순식간에 날아간 셈이다.

권무일 선생과 의논 끝에 새로운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향불사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30) 주희는 1147년 18세 가을에 건주(建州)에서 실시된 향시鄕試(해시解試)에 합격하여 공생貢生이 되었고, 이듬 해 3월 임안(臨安)에서 시행된 성시(省試)에 합격하여 동진사(同進士: 일종의 준진사準進士)가 되었다. 3년 후 이부(吏部)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하는 일종의 임관시험인 전시(銓試)에 통과하여 좌적공랑(左迪功郞, 종9품)의 관직을 얻어 천주 동안현(同安縣) 주부(主簿)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그는 동안현에서 4년 6개월 동안 임직하면서 현아(縣衙) 서북쪽 공해 안에 '고사헌(高士軒)'을 정비했다.



[그림 5] 하문의 문공서원

것이었다. 향토사학자 린훙투(林宏途) 선생(하문시 동안구민족종교사무국의 주임과원)은 향불사라는 절은 하문에 없다고 했으나 권무일 선생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상안구(翔安區)에 향산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보기로 한 것이다. 구불구불 산길을 한참 가서 산을 넘자 참으로 꿈처럼 거대한 돌산에 절이 자리하고 있었다. 멀리 하문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남송 연간(1127년)에 지어졌다는 천년고찰 향산암사(香山岩寺)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향산경구(香山景區)라는 유원지에 속해 있으나 상안구에서 가장 큰 사찰임에 틀림없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뜻밖에도 향산암 좌측에 「휘국문공사(徽國文公祠)」라는 작은 묘당이 있었다. 송 이종(理宗)은 1230년(소정紹定 3년) 주희를 '휘국공(徽國公)'으로 추봉(追封)했으니, 「휘국문공사」는 바로 주자의 사당이다.[31] 안내문을 보니 1440년(명대 정통正統 영종英宗 연간)에 주희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동안현의 현령이 건립했다. 그곳은 향산서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대 만력 연간에 민남(閩南)의 거자(擧子, 향시에 통과한 과거 응시생) 10명(그들 모임을 십호회十虎會라고 한다)이 그곳에서 학업에 열중하여 모두 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한때 영광은 어디로 가고 사당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상점에게 자리를 내주어 곳곳에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들어섰다.

흥미로운 점은 사당답지도 않은 그곳에서 어느 아낙네가 정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엇을 기도하느라 저리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알 수 없으되 주자상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주자는 분명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이었으리라!



[그림 6] 휘국문공사

주희는 송대 신유학(新儒學)을 집대성한 사상가이자 교육가이며 또한 정치가이다. 유가는 때로 유교라고 부르지만 주희를 '신'의 범주에 놓고 논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조, 관우와 더불어 논의하는

31) 주희는 사후 많은 시호를 받았다. 1209년(송 가정 2년)에는 영종이 주희에게 '문文'이라 시호를 내렸고, 1227년 이종은 태사를 하사하고 '신국공'으로 봉했으며, 1230년(소정紹定 3년) 다시 '휘국공'으로 개칭하여 봉했다. 그리고 원조는 1335년(지원 원년) '휘국문공지묘(徽国文公之廟)'를 세우라는 조서를 내린 바 있다.

32) 유가는 유학을 배우는 학자들의 총칭이고, 유학은 그들이 배우는 학문을 말한다. 그리고 유교는 일종의 종교로 공교(孔教)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7] 휘국문공사 내부에서 주문공신위에 배례하는 이들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자는 남송의 유학자로 평생 10여 년의 관리생활 외에 40여 년을 강학과 집필로 일관한 학자이자 공자와 맹자 이후로 만고의 성인군자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또한 우리에게 주자는 조선 왕조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표적 인물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사고체계와 관념을 지배한 절대적인 인물이다. 어떤 시대이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고착되면 사고가 경직되고, 도그마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4백여 년의 역사 내내 조선을 지배한 성리학의 대표자인 주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주자는 단순히 고지식한 유생이 아니었으며, 서재에서 공부만 하고, 서원에서 학생들만 가르친 답답한 서당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관리 시절 남송시대는 물론이고 전체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창(社倉)을 운용하여 애민정신을 실천에 옮겼고,[33]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따라 불교에서 유가로 과감하게 사상적 전환을 시도하여 성공했으며, 유가의 제이론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자신의 글을 출판하기도 했고, 중앙관이 아니었음에도 중앙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자신의 학문이 위학(僞學)으로 금지되는 참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과 학맥은 끝까지 살아남아 문묘에 배향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가장 모범적인 관리이자 학인이며, 또한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추앙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추앙하겠는가?

중국의 민간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우 실용적인 공리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말인즉 그것이 누구이든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인물 또는 신령이라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하문에서 안내자의 소개로 들렀던 곳에서 특이한 것을 보았다. 그곳은 하문의 10대 도관 가운데 하나인 동안(同安) 동악행궁(東岳行宮)이었다. 『동안현지(同安縣志)』에 따르면 당대 설령지(薛令之)가 건립했다고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동악, 즉 태산의 인성

33) 주희는 순희 8년(1181) 52세 겨울에 조정에 청하여 '사창조례'를 여러 고을에 반포하도록 했는데, 역대 사창 가운데 그가 마련한 사창이 가장 성공적이었다. 이는 관리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체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또한 주자는 동안현주부로 있었을 때 경계가 분명하게 시행되지 않는 폐단을 알았던 관계로 천주(泉州), 장주(章州), 정주(汀州)의 3주에서 경계를 명백히 할 것을 조정에 주청했다. 여사면(呂思勉), 2019: 132-134.

태제(仁聖太帝)를 모시는 곳이었다. 당연히 도교 사원이다. 정전 안으로 들어가니 감실(龕室) 앞에 양쪽으로 여섯 개의 거대한 조상(彫像)이 유리창 안에 세워져 있었다. 물어보니 감라(甘羅), 강상(姜尚), 범증(范增), 석숭(石崇), 팽조(彭祖), 안회(顔回) 등 이른바 '육부족(六不足)' 신상이라고 한다.[34] 여러 신상들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흥미롭게도 한 쪽에는 석숭의 상이 다른 한 쪽에는 안회의 상이 서 있었다. 안회는 공문의 탁월한 제자로 이른바 안빈낙도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공자가 유독 그를 아껴 '仁', 즉 '어질다'라고 칭했던 이다. 그래도 도교 사원에 안회는 이상하지 않나? 더 이상한 이는 석숭이다. 서진(西晉) 거부이자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인물인데, 어쩌다 이곳에서 신상으로 모셔져 있는가? 능히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안회는 공부의 신, 석숭은 재물의 신으로 모신 것이라면 얼추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들이 신인가? 당연히 신이다. 백성들이 믿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마조나 관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주희 또한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며 실제로 신앙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주희는 관방에서 공식적으로 제례를 올리는 신령이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 까닭이 없다.

분명히 주자는 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관우나 마조가 그런 것처럼 신의 반열에 올라 국가의 제례를 받는 신령이 되었다. 필자가 '신'의 범주 안에서 주자의 위상을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당시 우리가 찾아갔던 그곳, 즉 상안구의 향산암 좌측에 자리한 「휘국문공사」가 그 옛날 이방익이 찾았던 자양서원일까? 단언하기 힘들다. 우선 휘국문공사는 자양서원이라고 불렸던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휘국문공사라는 현판이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방익이 그것을 보고 굳이 자양서원이란 현판이 있었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앞서 말한 바대로 명대 만력 연간에 그곳에서 민남(閩南)의 거자(擧子) 10명이 모여 공부했다는 말이 있으나 서원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로 하문에는 예로부터 자양서원이라 칭하는 곳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이방익이 방문한 곳이 아닐까?

『하문시지(厦門市志)』 제4책, 제1장 구식교육, 제2절 서원의 기록에 따르면, 하문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은 원대 지정10년(1350년) 동안현에 창건된 문공서원(1350년)이고, 이후 청말까지 전체 19군데 서원이 건립되었다.[35]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원을 연도별로 살

34) 동안불교협회(同安佛教協會), 도교협회(道教協會), 2017: 64-67.
35) http://www.fzb.xm.gov.cn/sqz/xmsz4/201108/t20110801_853373.htm#divTop에서 2020년 5월 20일 인출.

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병(玉屛, 1685년), 오강(鰲江, 1703년), 문창(文昌, 1662년), 자양(紫陽, 강희 연간, 1718년쯤), 쌍계(雙溪, 1737년), 방산(舫山, 1746년), 봉산(鳳山, 1746년), 화산(禾山, 1862년).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자양서원은 강희 연간(1662-1722년)에 창건한 교육기관으로 하문의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자 자양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희를 모시는 사당의 역할도 맡았다. 자양서원은 원래 하문성 서문 밖 조천궁(朝天宮)[36] 뒤편, 지금의 하문시 사북(思北) 소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1718년(강희 57년) 절강 사람 범정모(范廷謨)가 하방동지(厦防同知)로 임관하면서 하문항(厦門港) 해방청(海防廳) 부근으로 이전시켰다. 이후로 "흥천영도(청대 복건성의 행정구)는 옥병서원을 책임지고 해방청은 자양서원을 책임진다(興泉永道負責玉屛, 海防廳負責紫陽)"는 말이 생겼다.[37] 그런 까닭인지 1724년(옹정 2년) 하방동지 풍감(馮鑒)은 사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대문 양쪽 상방(廂房)에 객점(客店, 일종의 여관)을 운영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서원 경비로 사용했다. 이후 학생이 줄어들고 관리가 허술하여 폐원 상태에서 심지어 말을 키우는 마구간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1781년 하방동지 장조진(張朝縉)이 서원을 수리하고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서원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폐원과 복원을 거듭하다 1841년 아편전쟁이 발발하자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옥병서원과 합병하고 말았다. 1898년(광서 31년)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서원으로서 명목을 잃고 폐원되었으며, 1909년 자양소학으로 바뀌었으며, 1945년 이후 하항제일중심초등학교(厦港第一中心國民學校)로 개칭했다.

이곳을 이방익이 방문한 자양서원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표해가」에서 이방익이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이방익은 "丁巳 正月初四日에 厦門府에 드러가니, 紫陽書院 네 글자를 黃金으로 메웟는대. 甲紗帳 둘너치고 左右翼廊 奢麗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문부'로 들어갔으며, '좌우 익랑을 화려하고 꾸몄다.'는 구절이다. 이방익이 하문부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청대에 연안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해방청에 들렀을 것이다. 아마도 이방익은 해방청을 하문부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해방청은 천주부 소속의 해방동지서(海防同知署)의 간칭으로 바다와 인접한 지금의 사명구(思明區)에 위치하고 있는 관아로 군사는 물론이고 행정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리인 동지(同志)는 정5품으로 지부(知府)의 부직이었으나 강희 연간

36) 조천궁은 도교 사원으로 옥황상제와 진무(眞武) 등 신상을 모시는 곳이다. 그런데 하문의 조천궁의 주신은 흥미롭게도 천비(天妃), 즉 마조이다.

37) 해협문사(海峽問史)의 블로그(博客), 「하문을 걸어가며 읽다, 자양서원: 섬에 우뚝 선 사당, 5백년의 가르침이 있는 곳(走讀厦門, 紫陽書院 : 巋然島上崇祠宇, 五百年來教澤存」. http://blog.sina.com.cn/s/blog_a517efe60102w1l3.html 에서 2020년 5월 20일 인출.

(1661-1722년) 이후로 현지 정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장관이나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이방익이 하문에 도착한 이상 반드시 그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자양서원은 바로 해방청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양서원은 해방청에서 맡았다고 할 정도로 관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었으며, 역대로 여러 동지들이 서원을 수리하고 확충했다. 해방청을 가는 길에 자양서원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렀을 것이고, 어쩌면 「서이방익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 묵었을 수도 있다. 그곳은 일행이 머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이다. 셋째, 1724년 하방동지 풍감이 사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대문 양쪽 상방에 객점을 운영했다. 이방익이 말하길, '좌우 익랑'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했다고 하였으니 묘사 내용과 실제가 부합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두석 교수가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38]

이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익이 방문한 자양서원은 하문부, 즉 해방청 인근에 있었던 자양서원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방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Ⅴ. 나오는 말 - 다신이무신(多神而無神)

이제 논의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본고는 앞서 말한 바대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 하나는 이방익의 표류기를 따라가는 일종의 추적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하고 느낀 일종의 보고문이다. 보고문의 주제는 바로 '신(神)'이다. 확인한 내용은 본문에서 이미 말한 바 있으니 여기서는 '신'의 문제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원래 유구한 다신의 전통을 지닌 나라이다. 인류의 원시부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모든 만물에 신령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애니미즘 또는 동물이나 자연물(토템)과 개인 또는 사회가 숭배나 친족 관계를 맺는 토템이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상(商, 기원전 1600-1046년쯤)은 일월성신을 비롯하여 하신, 산신 등 자연만물(천신天神과 지지地祇)과 조상신(人鬼) 등을 숭배 대상으로 삼아 자연숭배, 영혼숭배, 토템숭배의 원시종교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帝)'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

38) 이두석 교수는 「이방익 복건 경내 유력 경로 고찰(李邦翼游歷福建境內陸地路徑考)」에서 하문 해방청 인근의 '자양서원'이 이방익이 방문한 곳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두석 교수는 청대 사람 설기풍(薛起風)이 편찬한 『노강지(鷺江志)』와 청대 도광 19년에 편찬된 『하문지(夏門志)』에서 기록된 '자양서원'이 내용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하문시 사명구 사명남로(思明南路) 352호 동쪽에 화엄사(華嚴寺, 1616년 만력 44년 창건)라는 사원이 있는데, 이방익이 말한 향불사와 명칭이 다르지만 아마도 그곳을 지칭하는 듯하다.

했다는 것인데, 제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체 만물 및 제신(諸神)을 주재하는 최고의 신이다. 또한 제는 기후나 재해는 물론이고 인간의 화복을 주재할뿐더러 전쟁의 승패나 정권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한다. 이렇듯 상대는 최고의 신인 제와 만물의 제신이 공존하는 일원신적 다신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나라로 넘어오면서 은상(殷商)의 일원신이자 천신의 우두머리인 제帝의 위상이 현격하게 떨어져 더 이상 일체만물을 주재하는 일원신이 아니라 조상신이자 상의 군주 칭호로 제한되었다. 대신 천(天)이 주재신이 아닌 인격신으로 등장했다.[39] 물론 천은 갑골문에 보이는 글자이지만 당시는 사람의 머리 또는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였을 따름이다.

둘째, 神이란 한자는 示와 申으로 이루어져 있다. 示는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희생을 올려놓는 탁자를 의미한다. 원래 示의 양쪽 삐침은 희생에서 떨어지는 피를 묘사하는 것이다. 申은 위 아래로 관통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하자면 인간이 하늘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귀신과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사람과 제사를 통해 관련을 맺음으로써 존재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갑골문 복사(卜辭)에 나오는 '帝'자는 나무를 쌓아놓거나 묶은 형태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를 주재하는 이는 당연히 군주이니 그런 까닭에 이후에 상의 우두머리를 일러 '제'라고 했다. 따라서 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존재하는 인간 본위의 신론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에서 오며,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에서 온다."[40] "천명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덕에 따라 옮겨간다."[41]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는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42] "무릇 백성이 신의 주인이다."[43] "신은 총명하고 정직하며 한결같으니, 사람에 의지하여 행한다."[44] 등의 발언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이나 "천인의 관계를 논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찰한다."[45]는 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 본위의 신론은 사람이 원한다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조나 관우, 심지어 주희까지 많은 이들이 신앙하는 신령으로 받들어질

39) '천'으로 신이나 상제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주대의 일이다. 주인(周人)들에게 '천명'은 곧 신, 상제의 명령이자 뜻이다.
40) 『상서·태서(泰誓)』,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41) 『상서·다사(多士)』, "天命靡常, 惟德是輔."
42) 『상서·태서』, "民之所欲, 天必從之."
43) 『좌전』 환공(桓公)6년, "夫民, 神之主也."
44) 『좌전』 장공(莊公)32년, "神聰明正直而壹者也, 依人而行."
45) 사마천, 「보임안서(報任安書)」, "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셋째, 중국에는 최고, 최상의 신은 있지만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일반적으로 Spirit, 즉 정신으로 번역하거나 God, 즉 하나님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Spirit이나 God는 중국의 신(神)과 등가의 역어가 아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언어가 지닌 역사적 뿌리가 다르고, 유일신의 의미가 강한 God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은 단순히 정신의 의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神은 한어 독음대로 'shen'으로 쓰는 것이 옳다. 중국의 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삼청, 원시천조, 옥황대제, 서왕모, 상아(嫦娥) 등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신으로 상상의 산물이다. 두 번째는 황제, 팽조, 장자, 동방삭, 장도릉 등 실제 인물이면서 신격화된 일종의 인격신이다. 세 번째는 종규(鐘馗), 관우, 마조 등 처음에는 민간신앙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신들이다. 이렇듯 중국의 신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특히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 신의 반열에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앞서 말한 바대로 인간 본위의 신 관념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넷째, 천상에 천신이 있다면 지상에는 천신의 아들인 천자가 있다. 천신은 유일하게 제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며, 때로 제사를 통해 달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상의 천자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군림하며, 일상생활까지 제어하고, 결코 달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종교는 존재하지만 교황이 없다. 군권이 신권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한편으로 봉선을 통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신의 서열을 정하고 지위를 부여하는 신 위의 존재이다. 이는 분명 부조화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 관념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다섯째, 중국인들의 신 관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가 사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논어·팔일(八佾)』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이 계신 것처럼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계신 것처럼 하라(祭如在, 祭神如神在)." 이렇듯 공자는 제사를 중시했지만 이는 제사를 통해 효성 등 도덕심 발양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신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시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이」편에서 "부모의 장례를 신중하게 치르고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들이 모두 두터운 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가 「옹야」편에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敬鬼神而遠之)."고 한 까닭 역시 동일하다. 실제로 유학을 배운 고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미신으로 치부했다. 이는 한대 왕충(王充)부터 시작하여 남북조시대 유물론자인 범진(范縝)을 거쳐 당대 한유(韓愈)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달랐다. 믿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바로 신이었던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종교에는 내세관이 없다. 다시 말해 차안(此岸)만 있을 뿐 피안(彼岸)이 없다는 뜻이다. 서구의 종교와 중국 종교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내세가 따로 없으니 현세의 부귀복락이 중요할 따름이다. 중국 고유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도교의 경우 별유동천(別有洞天)이라 하여 별도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그곳 역시 지상에 존재하는 곳일 뿐 세상 밖에 있는, 저세상의 천국이 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중국의 종교, 중국의 신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모를 지닌다. 이방익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새로운 기행에서 필자가 느끼고 확인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참고문헌

1. 사료

『尙書』

『論語』

『禮記』

『左傳』

司馬遷, 『史記』, 「報任安書」.

陳壽, 『三國志』, 「關羽傳」

朱熹 等, 『朱子語類』

2. 단행본, 논문 등

권무일, 2017, 『평설 이방익 표류기』, 평민사.

_____, 2019, 「제주표류인 이방익의 노정에 관한 지리고증」, 『제주도연구』 52, 99-157

박현규, 2018, 『동아시아 해상 표류와 해신 마조』, 학고방.

이유진, 2011, 「마조 신앙의 국가 공인화 과정과 그 의미」, 『중국어문학논집』 70, 461-480.

同安佛教協會, 道教協會, 2017, 『同安寺廟宮觀』, 廈門日報社.

干春松, 1992, 『神仙信仰與傳說』,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呂思勉, 2019, 『中國文化史』, 商務印書館.

葉恩典, 2007, 『中韓古代海上交流』, 遼寧民族出版社.

李斗石, 2019, 「李邦翼游歷福建境內陸地路徑考」, 제주중국학회 국제학술대회(10.19) 발표원고.

李少園, 2012, 『閩南文化風貌探尋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98-127.

衣若芬, 2008, 「漂流到澎湖：朝鮮人李邦翼的意外之旅及其相關書寫」, 『域外漢籍研究集刊』4輯, 中華書局, 415-425.

蔣鏞, 1961, 『澎湖續編』, 『台灣文獻叢刊』 115種.

蔣維錟, 周金琰, 2007, 『媽祖文獻史料彙編』, 中國檔案出版社.

張維錟, 2006, 「一篇最早的媽祖文獻資料的發現及其意義」, 『媽祖研究論集』, 海風出版社, 36-47.

3. 참고 사이트

http://blog.sina.com.cn/s/blog_6a5826b60102e2gs.html

http://www.fzb.xm.gov.cn/sqz/xmsz4/201108/t20110801_853373.htm#divTop

https://baike.baidu.com/item/%E5%B9%B3%E5%80%AD%E8%AF%8F/10915124?fr=aladdin

http://chenching.com.tw/%E9%80%A3%E6%B1%9F%E7%B8%A3/

Abstract

A Study of Chinese divinities through a drifting journey of Lee Bang-ik.

Shim, Kyu-Ho*

Lee Bang-ik, an armed man from Jeju during the Joseon Dynasty, is the one who possesses a unique experience; After meeting a storm on the sea of Jeju Island and drifting to arrive on Penghu Island of Taiwan during the Qing Dynasty, he crossed inland China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en returned home safely. He wrote "Pyo Hae-rok (표해록)" and "Pyo Hae-ga(표해가)" in Korean based on his experiences in his diary. Also, there are some records regarding his drifting and his activities in China, such as "Seoleebangiksa(서이방익사)," which King Jeongjo let Park Ji-won write. Based on the information upon it, we visited China in person to investigate and examine the matter. A total of three visits were made from 2018 to 2019. The contents of this book consist of the first and the second visit to the field. The main conten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 historical research of the place Lee Bang-ik visited, and the other is about the Chinese god, which I reviewed through a follow-up trip. These confirm the current location of the shrine of Mazu, Magong, Guandimiao(관제묘), and Jayangseowon(a memorial hall of Zhu xi) he visited, and also, deal with the matter of Chinese religion and several gods in the place where Mazu, Guan Yu, and Zhu xi were worshiped as gods.

Key Words : Lee Bang-ik, Mazu, Magong, Guandimiao, Jayangseowon(a memorial hall fo Zhu xi), Folk religion

교신 : 심규호 632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35, 101-203(아라이동, 남양테크빌)
(E-mail: shim42start@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0. 07. 15
심사완료일 : 2020. 07. 27
게재확정일 : 2020. 08. 09

* a chair-professor a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Chinese Literature